

雪嶽洞 · 鏡浦台를 가다

故 金 允 基

本 紀行은 故 金允基 前會長任이 作故하시기 몇일前에 執筆하셨던 生에 마지막 原稿로서 故人의 靈魂을 달래며 뜻을 기리기 위해 掲載합니다.

— 編輯者 —

雪嶽의 氣候節氣는 다른 國立公園에 比해 여 간 變化無双하지가 않는 모양이다. 지난해 가을 五色丹楓이 宛然한 雪嶽에서 國立公園大會를 가진 기억이 아직 선한데 2月初의 매스콤은 嶺東地方에 1m 以上の 大雪이 내려 山行의 閉門인 大閉嶺에 이르는 交通이 杜絶했다고 알려왔다.

다시 보고 싶던 雪嶽의 겨울, 嶺東·東海의 겨울바다를 그리던 꿈이 깨어지는가 했더니 마침 嶺東高速道路가 開通됨으로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本協會理事 金憲奎博士, 建設部 沈相勲公園課長과 同行하기로 作定한 것이다. 2月9日 午前10時, 서울을 떠난 一行이 原州를 빠져나오는 동안 都市의 騷音이나 俗塵의 굴레를 떨쳐 버리리라도 하듯 줄곧 山과 自然에 처한 話題의 꽃을 피웠다.

한참을 달렸을까, 눈산은 하늘을 치닫고 굽이진 산모퉁이를 돌아나갈 때는 눈沙汰를 만난듯도 하고 때론 눈더미속에 곤두박질치는 느낌마저 들었다.

단장한 原州새마을을 지나 大閉嶺에 到着한 때가 13時, 車에서 내리니 바람은 약간 쌀쌀했지만 大閉嶺峻嶺休憩所에 선 一行은 한낮의 햇살로 더욱 아름다움을 드러낸 雪景에 그만 할말을 잊고 말았다.

休憩所에 들러 점심을 들었다. 흡사 눈더미속서 갓 건져낸 김치맛이었지만 「고추品質」라는 日常의인 煩惱도 달잡기만 했다.

奇岩怪石으로 韻致를 들군 大閉嶺의 99溪谷을 구비돌아 도리질하듯 고개길을 반쯤 내려가 노라니 눈도 적어지고 조바심도 가서 미끄러운 山行中에도 爽快한 기분은 여전했다.

金憲奎博士의 提案으로 江陵鏡浦湖에 들렀다. 予測한대로 50~60마리의 고니가 노니고 있을 않는다. 「金博士가 울줄 알고 白鳥가 기다리고 있던 참이요」라고 응수하자 그는 카메라를 부지런히 돌려댔다.

우리 一行은 다시 烏竹軒을 거쳐 五台山國立公園의 一部地域인 小金江쪽으로 가기위해 左廻轉하여 非鋪裝道路를 달렸다. 小金剛入口에 들어섰으나 尺雪되는 눈은 그대로이고 道路마저 분간키 어려웠다.

車바퀴에 체인을 달고, 돌아서서 車체를 밀며 바둥거려왔지만 허사였다.

그이상의 冒驗은 無謀한 것이었다.

雪嶽洞을 가기위해 迂廻하여 東草길로 접어 들었다.

어느덧 東海가 펼쳐지고 눈앞에 水平線이 가로 놓인다. 文化住宅으로 變貌한 漁村이며 海水浴客의 便宜를 위해 마련된 集團施設도 겨울 海邊의 눈요기요, 멀리 혹은 가깝게 너울대는 갈매기가 한결 겨울바다의 韻致를 북돋운다.

雪嶽洞에는 夕陽녘에 到着했다. 한낮의 雪嶽도 불만하지만 노을이 스민 雪景은 말로 表現키 어려우리만큼 絶色絶妙한 感興을 불러 일으킨다.

겨울이면 탐방객이 적어 宿泊業所의 2/3가 休業에 들어간다는 이곳 管理所長의 말이다. 무거운 룩삭이나 裝具를 걸머져야만 登山이겠는가.

500m 程度의 스키가 가능한 大閉嶺스키장 에서 家族同伴으로 즐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安



〈龍平스키場〉

全地帶까지만 登攀하고 발길이 머무는 山麓에서 自然의 名山幽谷을 觀望하는 것도 意味가 있지 않는다.

78年 10月 全國公園大會때 나는 산머리엔 눈(雪)이요 山塵·山峽이 온통 丹楓의 치맛자락으로 드리워진 雪嶽이 생각이나 더욱 感懷가 깊은 것이다.

누가 내게 묻는다면 春夏秋冬·4時4節 全天候觀光·休養의 搖籃地가 이곳이라고 서슴참고 대답하겠다.

××開發과 ××建設에서 新築中인 2個의 現代式호텔이 곧 竣工된 것이고 自然이 毀損안되는 限度內에서 造景도 自然과 調和있게 꾸며진다면 봄부터 더 많은 内外探訪客이 殺到하리라 본다. 밤에는 束草에 나가 싱싱한 生鮮회를 吟味했고 10日 동이를 무덤 窓門에 박히는 雪嶽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다.

아침식사를 끝낸후 公園管理事務所에 들러 그곳 崔所長으로부터 公園의 保護管理와 探訪客에 처한 指導啓蒙등 全般的인 現況을 聽取했다.

自然과 親熟하고 그와 競争하는 人間의 굳은 意志와 信念이 담긴 애기와 隘路事項을 들었을 때는 숨어 奉仕하는 그들의 精神은 물론 待遇도 하루빨리 改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束草北方 4 km 地點에 位置한 永郎湖를 찾았다. 5~6마리의 고니와 물오리 몇마리가 있을뿐 湖水近郊에 人家가 있고 周辺景觀이나 林相이 貧弱해서 멀리 시베리아로부터 날아오는 白鳥 渡來地로서의 安息처가 되기에는 아직 開發의 余地가 많은듯 싶었다.

船遊를 삼가하고 물고기·새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東海岸을 따라 南下하다가 江陵鏡浦臺로 오는 길에 빼지은 120여마리의 白鳥食口를 만났다. 親友를 만난듯 반갑기만하다. 때로 비상하고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白雪속에 피어 오르는 한송이 꽃갈기도 하고 原初的인 真, 善, 美의 징표아니면 自然에의 겸허한 歸依를 말해주는듯 그 자태 또한 곱고 깨끗하지 않는다.

나는 갈대를 헤집고 새우잡이를 하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보시오! 안그래도 白鳥가 稀貴한데 새우나 미꾸라지·물고기를 잡아버리면 뭘 보고 白鳥가 오겠오」하며 自然保護의 참뜻을 깨

우쳐 주기도 했다.

旧歷 1月 14日 밤 鏡浦湖를 비추는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黎明의 東海바다는 가슴벅찬 感動과 生의 喜悅을 안겨주었다.

다음날 11日은 일요일인데도 江陵市建設課長을 만날기회를 가졌다.

나는 그에게 湖水南側에 호텔建立이나 船遊場으로 開發하는 計劃은 慎重이 檢討·修正되어야 하며 白鳥의 잠자리가 되고 있는 松林하나를 베어내더라도 自然保護의 側面에서 모든 開發計劃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湖水周辺 곳곳에 물고기를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警告板을 세워줄 것을 提言했다.

어느호텔 支配人을 만났더니 海水를 引込·加熱하여 全天候地下물장을 만들었는데 每月 20萬원의 經費가 所要된다고 했다.

나는 太陽에너지를 利用, 集熱版(corrector)를 設置하여 파이프로 물에 連結하면 浴湯給水는 充分하다며 本人은 이러한 案을 내세워 指示할 權限도 없는 사람이지만 느낀바를 相對方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國民된 義務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돌아오는 길에 沈課長의 提案으로 竜平스키장에 차를 세웠다. 호텔은 물론 유스·호스텔과 케이블카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날은 積雪이 적당해서 스키를 즐기는 3,000여명의 同好人들은 저마다 눈을 지치는데 신이나 있었고 白雪위에 펼쳐지는 原色스키복의 생동감 넘친 울동이 더욱 불만했다.

그곳 支配人의 말인즉 高速道路에서 스키場에 이르는 進入路가 머지않아 延長·鋪裝 될것이며 人工的으로 降雪되는 施設도 갖출計劃이라고 했다.

3,000余名の 스키同好人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經濟가 그만큼 成長·發展된 証左이기도 할것이다.

自然과 벗하여 家族과 함께 休日을 즐기는 일이며 스포츠를 통해 體力을 研磨하는 일은 바로 余暇善用이요 나아가 社會氣風이 바로서는 조짐이 아니겠는가.

山行은 愉快하다.

自然과의 對話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대로 旅行記를 빌려 여기 記錄해 둔다.

1979年 2月 12日 記